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11월 22일(수)

윤석열 대통령 부부,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 참석 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동한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, 영국 훈장 수훈 -

영국을 국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오늘(현지 시각 11/22, 수)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 예술인 격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.

찰스 3세 국왕은 케이팝 그룹인 블랙핑크에게 대영제국훈장(MBE)*을 수여했습니다.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26)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면서,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습니다.

*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, 정치·경제·문화예술·과학·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(영국 왕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훈자 선정)

- 대영제국훈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, 이 중 MBE(Memb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)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
- ▲비틀즈(1965년, 음악인 최초 MBE), ▲아델(2013.6월) 등이 MBE 수상

대통령은 블랙핑크가 2021-2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의 홍보대사이자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로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아젠다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, 국익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 <끝>